

광주 '광천상무선' 속도 낼까...의회 '제동' 부정 영향 우려

확정 계획안 이달 말 국토부 제출...2028년 착공·2032년 준공 목표 광주시의회 "봉선첨단선·수완평동선 등 포함한 종합적인 보완 필요"

광주시가 광천상무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사업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자료 제공 부실 등을 이유로 의견 청취 절차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국토부 제출 계획안에 담긴 예정이어서 향후 정부 논의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천상무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계획을 확정해 이달 말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은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을 거쳐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광주시 측이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광천상무선 단일 노선으로 국한한 안을 마련한 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함께 검토해온 봉선첨단선, 수완평동선, 효천선 중 경제성이 확보된 노선을 포함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도시철도망 4개 노선의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와 내용 설명이 부족해 주민들에게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광주시가 시민공청회를 설 연휴 직전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등도 부실하다며 의견 청취 연기를 결정했다. 광

주시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의견 청취 연기에 대해 시의회의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시의회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입장을 통해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검토된 노선 중 광천상무선 우선순위 편성에 동의 하되, 경제성이 확보된 노선을 포함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라면서 "광주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미비점에 대해 보완 의견을 낸 것으로, 광천상무선 단일 노선에 대한 이견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발목잡기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천상무선, 봉선첨단선, 수완평동선을 검토했으며, 재원 조달방안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 1순위로 광천상무선을 선정했다"며 "5년 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종합적인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천상무선 사업비는 692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시는 북향소평을 개발 공공기여금으로 시비를 충당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녹동역~상무역~평동역까지 일직선 구조인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 중이며 남광주역~상무역~점단 1·2지구를 순환하는 2호선을 건설 중이다. 여기에 현대·신세계백화점 복합소상공물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이동 수요 등을 고려해 상무역~광천권역~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7.78km 길이의 광천상무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정월대보름 수놓은 불꽃" 정월대보름을 앞둔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임동 서방천에서 주민들이 한해의 액운을 떨치기 위해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전국 1위 달성 목표

4500ha 늘려 6160ha...21일까지 한국농기원 접수

전남도가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인증 기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현재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1660ha로 전국 4위(11.7%)다.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1위는 전북으로 4427ha(31.2%)이며, 경북 3303ha(23.2%), 충북 1766ha(12.4%) 등이 전남보다 앞서 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녹비작물 재배, 제조용 생물자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만 농사를 지어도 인증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6160ha(기존 1660ha·신규 4500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산물)이다.

상반기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1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 보고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

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이다. 인증비는 100% 지원(건당 100만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데 농업도 예외일 수 없고, 저탄소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전남이 유가농업의 저탄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도록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매출액은 2020년 553억원에서 2023년에는 82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의회, 중심상업지구 주거용 용적률 540% 이하로

광주시, 위해시설 늘며 주민 삶의 질 저하 등 이유로 반발

광주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대폭 올리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 부동의에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집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인상은 상업-업무 기능 확충이라는 중심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상업지역 내 주거 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거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540% 이하로, 140%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중심 상업지역 100㎡의 건축부지에 과거 4층까지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5.4층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광주시는 주거 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

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섞여 주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는 것이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은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실과 도심·주거지역 배후지로서 중심 상업지역의 용도 상실 등 광주시 주거 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면서 "의회 고유 입법권은 인정하지만 집행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부작용이 명백해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 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 시설의 입지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지 의문"이라며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의 약성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택 추가 공급 정책은 미분양 발생을 가속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광주 실현"...광주시, 환경분야 협력 강화

자치구·환경연구원과 협력체계 구축...환경검사 기관 간담회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7대 환경분야에 대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1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먹는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환경유해인자, 토양, 공공하수 등 7대분야 '환경검사 관

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도·점검기관인 광주시와 자치구, 시험·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지역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를 비롯한

대기오염배출시설·실내공기질·어린이활동공간지도·점검, 토양오염 실태조사, 공공하수 수질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이 필요로 하는 연구·조사사업이나 예로사항은 물론 정책적연계가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도 담당자 의견을 청취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